



#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 인 터 뷰

진주 공예 및 민속 예술 비엔날레(Jinju Crafts and Folk Art Biennale)에서  
코모(Como) 실크의 우아함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Focal Point of Como), 코스탄자 페라리니

## 로베르타 레다엘리(Roberta Redaelli), 진주 공예 및 민속 예술 비엔날레(Jinju Crafts and Folk Art Biennale)에서 코모(Como) 실크의 우아함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진주에서 열리는 전통공예비엔날레에 코모의 우수성과 실크의 우아함을 소개하기 위하여 메스티에르 사르티(Mestiere Sarti)의 회장이자 콘파르티지아나토 임프레세 코모(Confartigianato Imprese Como)의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로베르타 레다엘리(Roberta Redaelli)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코모(Como)의 섬유 지구를 대표합니다. 진주 비엔날레 국제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그녀의 걸작 중 하나로 코모의 기술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크레오 창의 기회(CreO Creation Opportunity)와 실험 창의 센터 'Creazioni Digitali'의 혁신적인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릴리프 프린트(relief-printed: 입체감있는 인쇄) 기법의 실크 오간자(organza) 코트입니다. 이 앙상블은 또한 시퀀 프린트(sequin-printed) 머메이드 스킨 효과를 낸 식물 치마와 조화롭게 실크 마감 처리된 상의가 특징입니다. 이 작품들은 로베르타 레다엘리와 예술가 메흐틸드 아커만(Mechthild Ackermann)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2019년 출범한 진주비엔날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레산드로 볼타 재단(Alessandro Volta Foundation)의 코모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정실의 노력 덕분에 진주 비엔날레는 코모와 진주의 문화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2023 비엔날레 문화교류에는 한국위원회가 선정한 예술가/장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인터뷰의 초점은 장인 정신과 예술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의 예술(The art of doing)"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련의 행동과 태도를 불러일으켜 사회를 더욱 경제적으로 지

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술과 수작업의 지속적인 결합이며,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1. 진주비엔날레에서의 경험이 흥미로웠나요? 선정된 예술가/장인의 작품은 어떻게 전시되었나요?

로베르타 레다엘리: 진주 비엔날레에서 보낸 시간은 창의성에 생기를 불어넣는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예술가들을 알게 되고, 풍부하고 독특한 한국 문화를 탐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선정된 예술가/장인들의 작품은 전용 전시관에 세심하게 전시되어 관객들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인 작품들이 매우 특별했고, 전통과 현대 미니멀리즘의 융합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2. 귀하의 직업적 성장에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베르타 레다엘리: 물론입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 직업적 발전에 지속적인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예술적 장인 정신의 세계적인 영역에 밀접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제 비즈니스의 인식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 기반도 강화됩니다. 진주 비엔날레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유일한 예술가/장인이 된 것은 제가 일상 작업에 투자하는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인정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선정된 예술가/장인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였습니까?**

로베르타 레다엘리: 비엔날레 기간 내내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장인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처와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특히 섬유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과 잠재적인 협력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독특하고 남다른 표현 언어를 구사하는 예술가들과 뜻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4. 진주비엔날레의 목적은 장인들이 모든 측면에서 예술가로 어떻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장인이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장인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로베르타 레다엘리: 진주 비엔날레의 미션은 매우 중요하며, 저는 이를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장인들은 종종 수작업 생산에 단순한 기여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장인들은 진정한 예술가로서, 재능과 종종 사라질 위험에 처한 기술의 완벽한 융합을 요하는 뛰어난 작품을 만듭니다. 예술가/장인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업세계의 복잡한 사항을 알리며, 또한 그들의 귀중한 노하우를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선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코모가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데 기여한 요인은 무엇이며, 이 도시는 섬유 부문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양성 평등과 같은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로베르타 레다엘리: 코모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라는 표현과 가장 관련이 큰 분야 중 하나인 섬유 부문에서의 경험과 강한 혁신 정신 덕분에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예술 창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섬유 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전문적, 예술적 기술과 경험의 방대한 유산을 축적하고 혁신 정신을 통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시는 2030 의제의 주제, 특히 섬유 부문에 고용된 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섬유 부문의 환경 지속 가능성과 양성 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섬유 산업은 무형의 인프라, 즉 회복을 위한 매우 귀중한 지식의 자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코스탄자 페라리니  
(Focal Point of Como)